

“연말은 관객과” 김범수, 고품격 콘서트로 열창 무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서 태어나 초교 시절 양천구로 이주해 성장기를 보낸 김범수는 교회에서 찬양을 하면서 가수의 꿈을 키웠다.

1999년 4월 데뷔 앨범 1집 'A Promise(어 프로미스)'를 발매해 MBC 드라마 '보고 또 보고'의 삽입곡이었던 '약속과 사랑이 떠나가네'가 히트를 쳤다. 흐느껴 우는 듯한 잔잔한 목소리는 극 내용과 함께 어우러져 리스너들의 귀를 자극했다.

이듬해 2집 앨범 'Remember(리멤버)'의 수록곡 '하루'로 가창력을 인정받았다. 2002년에는 3집 앨범 '보고 싶다'가 SBS 드라마 '천국의 계단' OST로 쓰이면서 인기몰이를 시작했다.

이후 '슬픔활용법' '끝사랑' '하루' '지나간다' 등 다양한 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2014년 발매한 정규 앨범 8집까지 활발히 발표하며 나일, 박효신, 이수 등 국내에서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들과 함께 묶여



더라옴먼트하우스 서울 광진구 자양동 2-3

그들의 성을 딴 '김나바이'로 불린다. 실력과 가수로 인정받아 2002년~2004년 KBS 가요대상 본상을 수상했다.

또한 국내 가수 중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차트에 이름을 올렸다. 2001년 '하루'의 영어 버전 'Hello Goodbye Hello'로 핫싱글즈 세일즈 차트 81위에 진입해 51주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한때는 '얼굴 없는 가수'로 불렸다. 1집 앨범 활동 때 방송에 얼굴을 드러냈는데 이후 앨범 판매량이 폭 떨어지자 얼굴을 감추고 활동했다. '얼굴 없는 가수'라는 신비주의를 유지해오다 2003년 KBS2 '윤도현의 러브레터'에서 오랜만에 얼굴을 드러내 방청객들의 환호를 이끌었다.

이후에도 얼굴을 잘 드러내지 않고 목소리 위주로 활동하다가 2011년 3월 MBC 음악 예능 '우리들의 일밤-나는 가수다'에 본격 출연하면서 가수 인생 최대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나는 가수다에 출연했을 때 제일 버라이어티했다"며 "그 순간의 감동을 잊지 못한다. 이소라의 '제발'을 불렀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했다.

당시 방송에서 박정현과 함께 최장생존 가수로 명예졸업을 했고, 이 무렵부터 일약 스타덤에 올라 예능은 물론 여러 방송

에 본격적으로 활동하며 대세 가수로 떠올랐다.

또한 2014년, 2015년, 2016년 연속으로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 시리즈에서 심사위원을 맡아 참가자들의 음악을 평가할 정도로 실력 있는 가수임을 증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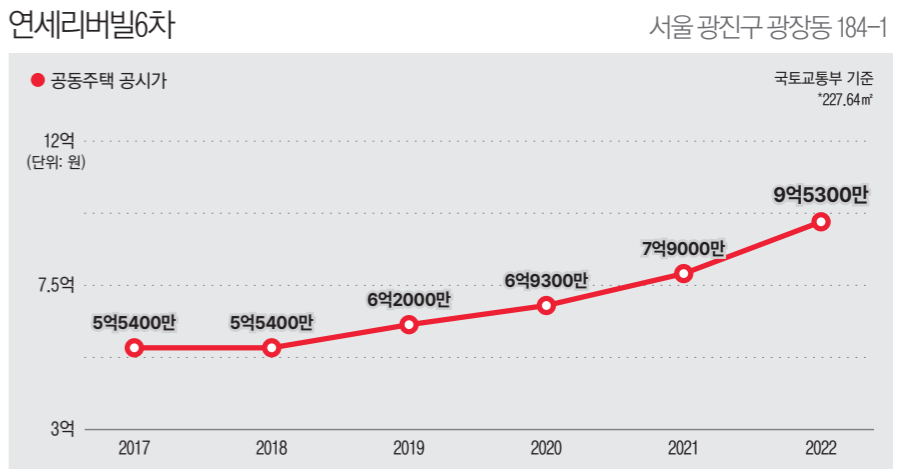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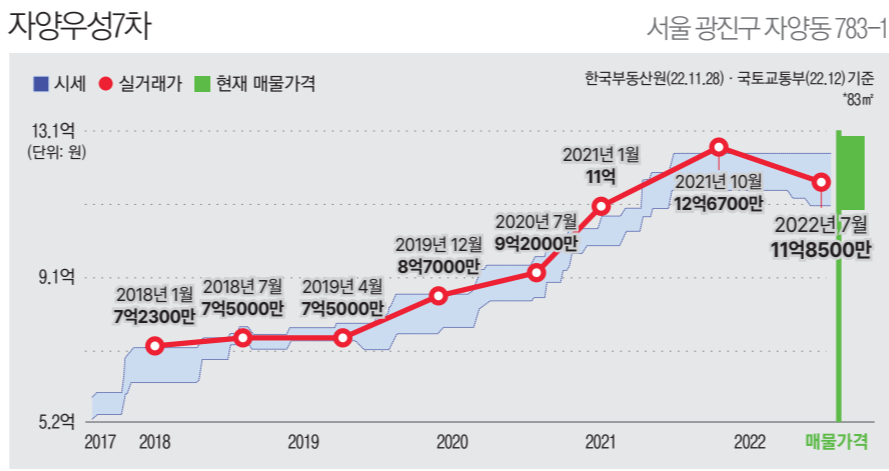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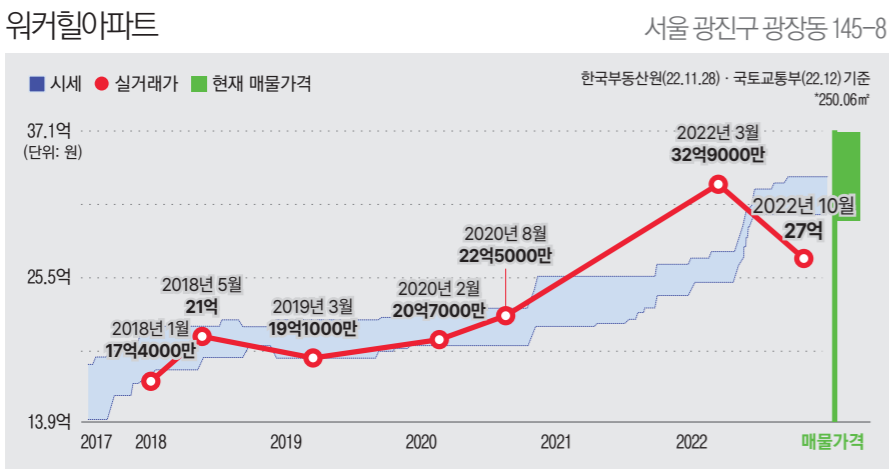
한편 대한민국 대표 보컬리스트 김범수가 오랜만에 콘서트로 돌아온다.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장충체육관, 31일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2022 김범수 콘서트 명품이즈백'으로 팬들과 만난다.

2019년 개최한 데뷔 20주년 콘서트 '더 클래식(The Classic)' 이후 3년 만에 선보여 관심이 높다.

공개된 포스터에는 '드디어 공연한다'라는 표현으로 오랜만에 팬들을 만나는 것에 기쁨을 드러냈으며 '보컬의 원조' '초 끝판왕' 등 재치 있는 수식어로 고품격 무대를 예고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김범수의 명품 보컬을 서울, 부산에 걸쳐 약 2만 명의 관객과 뜻 깊은 연말을 보낸다는 계획이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정선섭

현재발달컴 대표이사

정선섭 현재발달컴 대표이사는 한국사회의 재벌 현황과 문제점을 밝힌 재벌전문가다.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2월 경향신문에 입사해 사회부, 산업부, 경제부 기자를 지냈다. 1999년 말 기자 프리랜서를 떠났고 2000년대 초반 미국 등 해외에서 연구 활동을 해오다가 2006년 5월 '대기업 경영의 실상을 정확히 진단해 투명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자'는 목표로 재발달컴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재벌 총수와 대주주 일가족의 상장, 비상장 주식 보유 현황,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 사내유보금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태를 비판해왔다. 그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재벌정

제의 독선과 불법, 탈법에 대한 규제를 하지 못하면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편법적 대물림을 포함한 소유구조 규제, 황제적 기업 경영 방식 차단,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등 3가지 문제를 해결한다면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곽범국

현중소기업중앙회 단장

곽범국 중소기업중앙회 단장은 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리건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한양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2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국제행정사무관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고 재무부 경제협력국 사무관,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사무관, 아프리카개발은행(AFD) 자원관 등을 지냈고 2004년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의총괄과장 때는 예금보험공사 업무와 유사한 공적자금 지원과 회수 등 업무를 담당했다. 따라서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전부터 준비된 사람이라는 평

가를 받았고 부임 직후 임공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으며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중앙회 단장으로 임명됐다.

정승학

전서울광진구청장

정승학 전 서울 광진구청장은 광주 조선대부속고교를 나와 조선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코리아제록스에 입사해 사회생활을 시작한 들어간 지 4년 만에 과장이 됐으며 수도권총괄사업부장, 메이저담당중역, 특별담당상무이사 등 주요 보직을 거쳐 후지제록스호남 대표이사로 승진했다. 그러나 공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고 선출직 공직자가 되기 위해 10년 동안 다양한 사회 단체에서 활동하며 민맥을 꾸준히 넓혔다. 각고의 노력 끝에 2006년 민선4기 서울 광진구청장 선거에서 당선돼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구청장

에서 물러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감사, 공공기관 감사포럼 초대 회장, 병역명문가회 중앙회장 등을 지냈다.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부산 동구 "도시철도 1·2호선 부산진역~지계골역 연결지선 필요"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 동구는 도시철도 1호선 부산진역과 2호선 지계골역 연결 지선 건설이 자체 기초타당성 조사 결과 도시 관문의 교통편의를 크게 높이고 2030부산월드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밝혔다.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에서도 비용 대비 편익이 우수해 기존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 있는 10개 노선 중 12호선 급행화선, 송도선, 오시리아선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구는 도시철도 1호선 부산진역과 2호선 지계골역을 잇는 지선 건설을 강력히 주장하며 2024년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자 올해 3월부터 자체 기초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지난달 30일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도시철도 1호선 부산진역과 2호선 지계골역이 지선 건설로 연결되면 현재 서면역 환승을 통해 20분 걸리는 두 역 사이



이동시간이 10분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부산역에서 해운대 방향으로 이동시간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랜드마크로 거듭나는 북항 재개발지역의 교통환경 개선, 범일교차로 일대 상습적인 교통정체 해소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추진하는 '어반루프'의 필수

발전을 위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해 논의 중인 10개 노선 가운데 1호선 급행화선(0.746), 2호선 급행화선(0.752), 송도선(0.714), 오시리아선(0.710)보다 높은 점수다.

구는 부산진역~지계골역 지선 건설에 대한 자체기초타당성 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며 따라 향후 부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따라 불이 커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진역~지계골역 연결 지선은 박형준 시장의 보궐선거 당시 공약사업에도 해당해 건설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진역~지계골역 지선 건설의 필요성을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김진홍 구청장은 "북항 재개발사업의 성공과 2030 부산월드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지계골역~부산진역 지선이 2024년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착공 1000억 원 투입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는 바이오헬스기업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청주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첫 삽을 떴다고 밝혔다.

9일 청주시장은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고시한다.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에 따라 위탁사업자인 충북개발공사는 편입용지 토지 보상 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오송바이오산업단지는 28만3000㎡ 규모로 2025년까지 1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도는 산업단지 용지 조성을 위해 1년여 간 40만㎡ 성토재를 미리 확보하는 한편 사업

대상지와 인접한 오송 바이오메디컬지 구 진입도로 공사를 우선 추진해 30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했다.

사업대상지 내에 서식 중이던 법정보호종 맹꽁이 20마리를 청주 문암생태공원으로 옮겨 새 보금자리를 만들어주었다.

도 관계자는 "오송 지역은 바이오헬스기업의 입주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산업시설 용지 부족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우수한 바이오헬스기업들이 입주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